

<2022년 4월 30일 8급 지방 간호직 국어총평>

강사-송하라

지식형(7)	국어 문법, 국어 규범 (5문항)	표준어 규범 1 바른 문장 표현 1 품사 1 단어의 의미 1 담화 1
	어휘, 한자 (2문항)	한자성어 1 한자어 1
지문 분석형(8)	독해 (8문항)	내용 이해5 글의 서술방식 1 빈칸 추론 2
문학(5)	고전문학 (2문항)	수필1 소설 1
	현대문학 (3문항)	소설 1 시 1 희곡 1

수험생 여러분 오늘 시험을 치르고 오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치러진 지방간호직 8급 국어 시험은 대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시험이었습니다.

문법에서 표준어 규범, 바른 문장표현, 품사(다르다)의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모두 공감국어 문법시간과 동형모의고사, 기출문제풀이 시간에 함께 했던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되어 공감국어의 커리를 잘 따라온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문법의 기본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수험생은 품사(관형사, 형용사 구분)문제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본커리를 잘 따라온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준의 문제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휘에서는 한자성어와 한자어가 1문항씩 출제되었고, 한자성어는 함께 정리한 내용에서 그대로 나왔으며 2음절 한자어의 바른 표기와 관련된 문제는 공감국어 한자 어휘편을 잘 정리한 수험생이라면 잘 풀었을 단어였습니다. ‘내과, 간호, 입원’ 등으로 직렬과 관련된 한자어가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연한 한자어이긴 하지만 직렬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나올 만한 한자어를 잘 정리한다면 앞으로 한자어휘문제도 어렵지 않게 수험생들이 잘 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문학 독해 문제가 8문항으로 비중이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준비했던 비문학 이상의 난도로를 출제되지 않았고 내용 이해지문이 대부분 출제가 되어서 비문학에서 변별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전문학에서는 2008년에 국가직9급에서 출제된 이덕무의 작품이 출제가 되었고, 고전 소설역시 동형시간에 정리했던 은애전에 수록된 ‘신여척’의 이야기가 수록되었습니다.

현대 문학에서는 최인훈의 ‘광장’, 백석 ‘고향’, 이강백 ‘파수꾼’이 출제가 되었고

모두 공감국어 문학편과 동형에서 상세하게 고빈도로 살펴보았던 작품으로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로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시험에서 변별력을 주는 문제는 항상 언급했던 것처럼 한자어와 문법으로 볼 수 있으며 공감국어 커리를 잘 따라온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 했을 시험이라 생각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험보고 오느라 고생 많았고

열심히 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오늘 하루 푹 쉬며 앞으로 계획을 잘 다져보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량진에서 송하라